

광주 군공항 이전법 처리 '흔들'



국회 국방위원회는 21일 군 공항 이전 시 국가지원 등을 담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연다.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광주공항을 이륙하는 모습.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1~22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심의 부산-대구 신공항 마찰에 '쌍둥이법' 대구 군공항 이전법 통과 못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TK) 특별법'을 양 날개로 비상 중인 '국가지원 군공항 이전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21~22일 이틀간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열리는 데, 통과된다면 해묵은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느닷없이 영남 중추공항 선점을 놓고 벌어진 '부산 가덕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간 마찰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대구경북 신공항과 광주 군공항'을 한 데 묶어 특별법 통과 반대 등 견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20일 시청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국회, 지자체, 정부 3자가 국회에 모여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TK특별법 등 이른바 '쌍둥이법' 처리에 합의

했고 이후 구체적인 문구, 자구 수정까지 이뤄져 통과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상태"라면서 "민주당은 군 공항 이전이라는 당론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광주 군공항 이전)특별법이 21일 예정된 국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해 가덕, 대구경북, 광주 군공항 문제가 국회 1당인 민주당에 의해 잘 진행된다"는 확신을 심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와 국방부 등 정부, 여야 의원, 광주시 등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광주와 대구경북 공항 특별법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예산부족시 국고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주요 쟁점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6일 통과를 자신했던 TK특별법이 예상치 못한 부산지역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광주 군공항 특별법 처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부산 출신인 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구 갑) 의원 등은 부산 가덕신공항의 위상이나 영남 관문·중추 공항으로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해

TK특별법 통과를 반대했다. 이어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이현승(부산 진구을) 의원이 "추가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을 담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현행법인 국방부의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어긋난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는 등 국방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부정적 기류 때문에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2월 국회 법안 소위 통과는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국방위 법안 소위에 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발의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1번 법안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21일에는 제안설명만 청취하고 오는 3월이나 구체적 심의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TK특별법은 앞으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견 접근을 더 해야 하는 등 약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이견이 없기 때문에 2월에 먼저 통과시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이어 "최근 함평, 영광에서 군공항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있고 지금 발휘 수는 없지만 몇 군데(지역에서) 추가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특별법만 통과된다면 군 공항 이전이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는 오랜 시간 지지부진한 상태를 해소해줄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중한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북, 이틀만에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B-1B 출격에 반발

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기종을 알 수 없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군은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이틀 만에 올해 세 번째 도발이다. 전날 한미의 연합비행훈련에 반발

성격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 18일 오후 5시 22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ICBM 화성-15형을 고각으로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약 900km를 비행하고 동해상에 낙탄했다. 한미는 이에 대응해 한국 공군 F-35A와 F-15K 전투기 및 미 공군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으로 진입하는 미국 B-1B 전략 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연합 비행훈련을 펼쳤다. /연합뉴스

광주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제71기 수습기자 및 경력기자 모집

올해로 창사 71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가 열정과 패기, 특독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광주일보는 그동안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발굴, 보도하면서 독자와 지역민의 대변자를 자임해왔습니다. 신문과 인터넷·모바일이 어우러진 융합미디어를 지향하는 광주일보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호남언론 증가에서 100년 신문의 역사를 열어가길 장의적인 사고와 정열, 지혜와 용기를 가진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대상	전형절차	자격
수습기자 0명	1차 서류전형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경력기자 0명	2차 심층면접	

전형일정	일정 및 장소
지원서 접수	2월 28일(화) 방문 및 우편 메일(chongmu@kwangju.co.kr) 접수
서류전형 발표	3월 2일(목) 개별통보
심층면접	3월 8일(수) 본사 10층
최종합격자 발표	3월 9일(목) 지면 및 개별통보

제출서류	제출처
입사지원서 1부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소정양식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1부	A4 용지 1장 이내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졸업증명서 포함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수습기자 응시자 제출서류와 같은 본인 작성 기사 사본 5건	개인정보 비밀 보장

▶접수처: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광주일보사 경영지원국
光州日報社

한국판 챗GPT 개발 지원...정부, 신성장 4.0 대책 30개 추진

정부가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 대책을 올해 30개 이상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소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디지털 일상화·전략산업 지원·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상반기에만 관련 대책을 20개 이상 마련해 세부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이 오는 6월 중 발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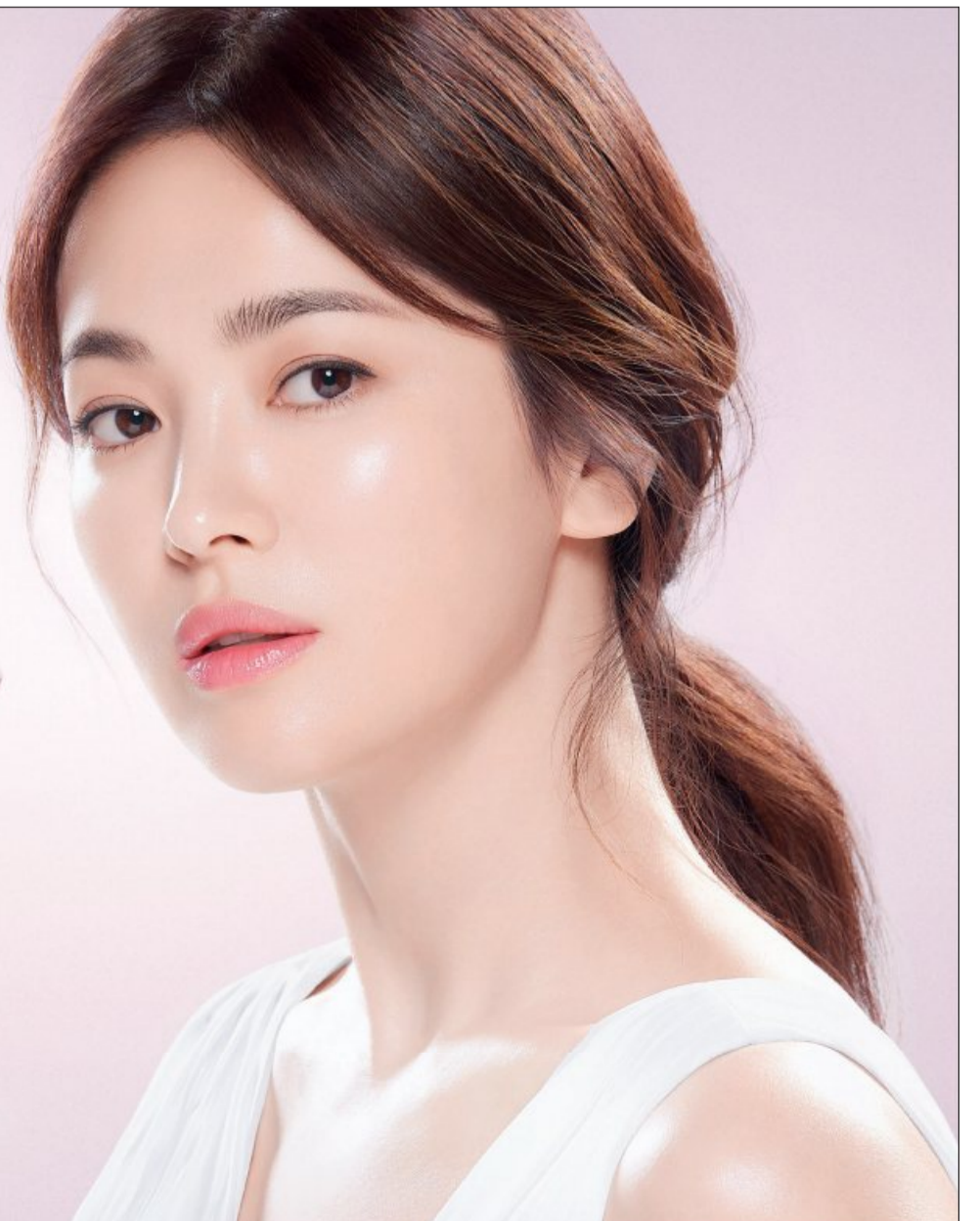
한국판 챗GPT(대화형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초거대 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간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의료 AI 솔루션 개발도 확대한다.

미래형 교통산업인 도심항공모빌리티(UAM)는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실증비행 테스트에 착수한다. /연합뉴스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